

“인생은 실패 딛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

방송인 김성환씨 ‘즐거운 삶, 아름다운 인생’ 특강
(전남매일 CEO 경제아카데미 7회차 강의)



10일 오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1기 전남매일 광주·전남 CEO경제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된 전국민의 사랑받는 옆집아저씨 김성환씨가 ‘김성환의 즐거운 인생’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방송인 김성환씨가 10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기 전남매일 CEO 경제아카데미에서 ‘즐거운 삶, 아름다운 인생’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씨는 긍정적인 생각과 인간미 넘치는 감초 같은 연기를 펼쳐 주변보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문지 마세요’, ‘인생’ 등을 히트시키며 가수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김씨는 이날 강연에서 구수한 입담과 함께 배우·가수·방송인으로서의 인생 역정을 털어놓았다. 대학진학 실패 등 본인의 어려운 시기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씨는 “CEO들에게 실패를 딛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며 “함께 노래도 부르고, 웃으면서 즐기자”는 인사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군산 출신 촌뜨기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8남매 장남으로 놀기를 좋아

했다”며 “대학시험에 떨어져 서울에서 재수를 준비하던 중 친구가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간다고 따라간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2명을 뽑는 탤런트 시험에 3,500여 명이 몰렸다”며 “탤런트가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심사위원으로 탤런트가 온다기에 구경이나 하자고 갔는데 강부자, 이순재씨가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시험에서 첫인상을 강렬하게 하려고 ‘군산서 인물, 노래도 된다고 해서 서울로 시험 보러 왔다’고 인사를 했다”며 “심사위원인 이순재 선배가 연기를 해보라기에 군산 장흥을 오가는 배에서 회중약을 파는 약장수를 흉내냈다”고 말했다.

시골 약장수 연기로 1차 시험을 통과한 그는 최종 시험에서 뱀장수 연기로 합격, 연기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유행어 ‘거시기’가 히트하기 전까지 그의 배우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되게도 전라도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말 없는 배역과 단역을 전전했다.

단역을 전전하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

왔다. 1997년 일일 연속극 ‘정 때문에’에 출연하면서다.

‘거시기’라는 단어를 유행하게 만든 배역을 맡아 스타 아닌 스타라는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

그는 유행어 ‘거시기’로 특허를 못낸 에피소드로 원우들의 배짱을 빠지게 했다.

그는 “특허를 내려갔는데 특허청 한 직원이 난감해하며 연락처를 묻길래 알려주고 돌아왔다”며 “한 달 후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 ‘선생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거시기는 모든 사람의 거시기이기 때문에 거시기 하질 않길 바랍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 직원이 정말 재치있게 기본 나쁘지 않게 편지를 보냈다”고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거시기’로 인기를 얻으며 배우로 입지를 다지던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 가수로 활동해보자는 제의를 받은 것이다.

그는 “인생은 한순간이며 매 순간이 선택이다”며 “탤런트에서 가수로 전환했지만, 탤런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가수 대열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가수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작곡가의 권유로 부른 ‘문지 마세요’가 인기를 얻었고, 그해 10대 가수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문지 마세요’를 열창했다.

김씨의 트레이드 마크인 ‘손장단’은 국악을 독학으로 배우면서 익힌 것이다. 그는 즉석에서 손장단으로 사설가를 열창, 원우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는 “뭉치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

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실패를 발판으로 인생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김성환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TBC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별난 며느리’, ‘결혼해주세요’, ‘바람 불어 좋은 날’ 등에 출연해 감칠맛 나는 연기를 선보여 왔다.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서의 끼와 열정을 보인 엔터테이너로 꼽힌다. /황애란 기자

광주-광저우시 교류, 한·중 우호 증진 ‘주목’

이 시장, 스토리텔링교류회서 23년 역사 소개

한·중 수교 27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한·중 우호 스토리텔링교류회’에서 광주와 중국 광저우시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주목을 받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중국 광둥성이 주최하고 광주의 자매결연 도시인 광저우시가 주관해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중 우호 스토리텔링 교류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광저우시와 광주시는 23년간 우정을 쌓으며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교류협력력을 이어왔다”며 “광저우시와 광주는 이념도 닮았지만, 역사 등 많은 부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양 도시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문화·체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

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진핑 주석께서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씀을 강조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뜻으로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성공하자는 의미다”며 “광주와 광저우시 간의 교류협력력이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은 물론 한·중 간 우호 증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7월 12일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한다”며 “마스터즈대회에 광저우 시장이 선수를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광둥성과 광저우시의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교류회를 주최한 광둥성 푸화선전부장은 “광주-광저우시 간의 감동적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한중 양국의 많은 교류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 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한·중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도 “광주와 광저우시의 교류는 한·중 우호 교류의 모범사례다”며 “오는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꼭 참가해서 한·중 간 문화·체육·예술 교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 광둥성 TV와 신문 등 언론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광주수영대회에 중국 선수단과 응원단, 관람객들이 많이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애란 기자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확대

신수정 시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 개정

신수정 광주시의원(북구 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사업 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친화사업장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현재 선정된 36개소의 친화사업장에 예산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주들의 자율참여확대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부산에 뒀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전도사인 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광동도 부산에 뒀다.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오후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

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부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김동준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 부산시민 등 100여 명이 참

석했다.

이 시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스포츠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대외이다”고 소개하면서 “부산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광주수영대회 성공의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부산 수영 동호인들의 마스터즈대회 참가와 부산시민들의 관람을 부탁했다. /황애란 기자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터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돔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아트웨딩컨벤션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Wedding Day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제아트웨딩컨벤션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 269.

제아트웨딩컨벤션